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말씀 : 마태복음 6:1-18

요절 : 마태복음 6: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지난 주 우리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신 큰 소망과 비범한 삶의 방향을 배웠습니다. 6:1-18절은 3대 경건생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경건생활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구제는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생활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며, 금식은 육을 다스리는 생활입니다.

그러면 천국시민들이 과연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에 ‘은밀’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행하는 의로운 행위가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 제자의 은밀성과 주기도문을 배우고 순종하므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I. 제자의 은밀성 - 너희 의를 은밀하게 행하라(1-8, 16-18)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1) 1절은 오늘 본문의 전제(서론)가 되면서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악을 따라 살지 않고 의를 행하며 산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기서 ‘의’는 'acts of righteousness'로서 ‘의로운 행위’를 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 등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불의한 세상에서 의를 사모하며 의를 행하고자 애쓰는 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은 한 마디로 의를 행하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의로운 행위에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위선적인 행동입니다. 이는 결국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구제, 기도, 금식을 예로 들어 이런 의를 행할 때에 주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째, 구제에 대하여(2-4)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2) 구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덕목(德目)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가난한 자와 나그네, 고아나 과부 그리고 장애인과 같이 연약한 사람을 돌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구제할 경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진 빛으로 계산하고 친히 갚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잠19:17) 예수님은 마태복음 25:4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 구제는 불교나 회교에서도 열심히 하지만 그 동기와 목적이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 값없이 거저 받았으므로 거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한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못됩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구제하기에 힘쓸 뿐입니다.

구제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구제는 단순히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도와주는 것만을 뜻하지 않고 영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심방을 하고 카운셀링을 하는 것은 최고의 구제입니다. 이기적인 세상에서 귀중한 시간과 물질과 진심을 바쳐 형제를 돕고자 애를 쓴다는 것은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나의 소중한 물질을 쪼개서 나누어 주고 도와주는 구제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없는 시간을 쪼개서 심방하고 말씀으로 도와주고 내면의 고민을 들어주고 섬겨주는 것 이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자세로 구제해야 합니까?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3,4) 예수님은 제자들이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 일, 헌신하는 일 등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일을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와 동역자조차도 알지 못할 정도로 은밀하게 오직 순수한 마음과 궁핍한 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으로 구제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교회에 아주 가끔 구제를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누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쁨으로 구제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의 일부를 샅으로 퍼서 드린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또 샅으로 퍼서 채워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샅이 제 샅보다 훨씬 더 커요” 그 분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것입니다.

전주시 노송동 주민 센터에는 매년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얼굴 없는 천사가 나타납니다. “소년소녀 가장 힘내세요.” 라는 글과 함께 거액의 기부금(寄附金)을 몰래 놓고 가는 분이 있습니다. 20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총 6억 834만 660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 분은 신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은밀한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얼굴 없는 천사> 비석까지 세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구제 은밀한 헌신 다 보고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둘째, 기도에 대하여(5-8)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5)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祈禱, prayer)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를 쉬게 되면 영적인 호흡을 멈추게 됩니다. 그때 영적인 생명이 끊어져 무기력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를 쓰고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전후(前後)하여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 점심 저녁에 시간을 정해 놓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단6:10) 예수님 당시에는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 세 번씩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외출하여 거리나 시장에 있게 될 경우 경건한 사람들은

자리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시간에 성전에 가지 못하면 길거리에서 그냥 서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거룩한 표정을 짓고 고상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오, 경건하기도 하셔라” 하면서 칭송했습니다. 여기에 재미를 느낀 외식하는 자들은 기도시간이 되면 일부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로 외출하곤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고상한 목소리(holy voice)로 미사여구(美辭麗句)로 멋있게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칭찬을 받는 데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6)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골방은 어떤 곳입니까? 골방은 창문이 없는 내실이나 창고로 잠시 세상의 모든 것에서 벗어나 홀로 기도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골방이란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작은 방입니다. 세상으로 향한 문이 닫히고 하나님께만 문이 열린 은밀한 곳입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장소가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 기도실, 연구실, 사무실, 자기 방, 자동차 안이나 심지어 화장실이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든지 마음으로 사람들과 세상을 떠나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곳이 바로 골방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세 개의 방 곧 기도의 골방과 말씀의 글방과 대화의 사랑방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시대에는 골방이 없고 폰방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문을 닫고 조용히 있는 아이들 방을 살며시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 핸드폰을 만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보도된 뉴스에 의하며 청년들이 일과시간 이후의 80%를 유 튜브(YouTube)로 보낸다는 통계 수치도 있습니다. 점점 발달하는 각종 IT기기(器機)는 골방을 빼앗고 있습니다. 화장실 지하철 학교 운동장 등산 심지어 기도실까지 파고들어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대면할 시간을 빼앗아 버립니다. 하지만 충전 없는 핸드폰은 방전되듯이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스퍼터링 방전되어 버립니다. 몸이 불을 끄고 잠을 자야 쉼을 얻고 재충전 되듯이 사람의 영혼 또한 세상의 소리를 끄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재충전 됩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기도로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생명력을 잃은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수시로 새벽 미명에 은밀한(한적한) 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막1:35) 특히 십자가를 앞두고는 겻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의 투쟁을 하셨습니다. 이로써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인류구속의 대과업을 완수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은밀하게 주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영성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사람들마다 그러한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를 믿음의 사람

키운 그의 어머니 수산나는 17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수산나는 경건과 기도의 여인이었지만 복제대는 아이들로 인해 설 수 있는 공간도 조용히 묵상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도무지 기도할 시간과 장소를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단호히 결단하고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앞치마로 얼굴을 덮고 있으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줄 알고 방해하지 마라!” 그녀는 자녀들이 많아 인격적으로 돌볼 수 없었지만 기도로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웠습니다.

스펠전은 19세기 가장 위대한 말씀의 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교회는 청중들로 가득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몰려와서 그의 성공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때 스펠전은 그들을 데리고 교회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무릎을 꿇고 부르짖으며 중보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 부흥의 비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은밀한 기도생활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리저리 낭비되었던 시간들을 아껴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삼아야 하겠습니다.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양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기도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기뻐하시고 은밀한 가운데 갠아주십니다.

셋째, 금식에 대하여(16-18)

“금식할 때에 너희는 의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16) 금식( )은 영적 목적을 위해서 음식을 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 있는 대 속죄일에 행했습니다.(레16:29) 또 국가적인 재난이나 모임이나 개인의 특별한 기도제목이 있을 때 금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에 의해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에스더는 모르드개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에스더4:16) 금식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또는 공동체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육신의 욕구를 끊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또 자신이 처한 절체 절명의 위기상황에서 또는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중의 하나입니다.

예수님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였습니다. 당시 금식은 경건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식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얼굴을 흉하게 하고 인상을 썼습니다. 머리도 감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얼굴에 재를 바르고 슬픈 모습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것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선적이고 모순된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종류의 금식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으로부터 그 응답을 자기 상을 남김없이 다 받았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금식할 때에 얼굴을 흉하게 하거나 머리를 헝클어트리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는 바리새인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금식할 때 머리에 무스를 바르고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단정하게 하여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은밀한 중에 보시도록 금식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받으시고 절박하고 간곡한 기도제목을 응답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금식(禁食)이란 단순히 음식을 금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 생활을 위해 육의 생활을 절제하는 것입니

. 세상 사람들은 육신과 감정대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영적 생활을 위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에 힘씁니다.(갈5:24) 잠을 절제하고 생각을 절제하고 시간을 절제하고 말을 절제하고 정욕을 절제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절제합니다. 이는 자기와의 투쟁입니다. 오늘날 신자들 가운데는 7일 금식을 했다느니 15일을 금식했다느니 하며 금식을 오랫동안 한 것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금하신 것이 아니라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금식할 때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도록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을 구하지 않고 은밀한 가운데서 순수하게 의를 행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 II. 주님의 기도 -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9-15)

9-15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형(模型-본보기)이므로 그 간결성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거스틴과 루터는 성경전체에서 주기도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Our Father in heaven)(9a)

먼저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막연히 허공에다 대고 주문(呪文)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대상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Our heavenly father” 이 말처럼 거룩하고 존귀하면서도 정감이 넘치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 하나님’ ‘The Lord’ 이렇게 부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원어에 보면 이 ‘아버지’란 단어를 헬라어로 ‘파테르’(πατερ)라고 하였습니다. 이 ‘파테르’는 ‘아빠’라는 뜻입니다. 즉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아빠, 아버지” 이는 언제 들어도 편하고 정겨운 이름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빠를 부르면서 부동자세로 꼳꼳이 서서 “아버님” “아바마마” 이렇게 안 합니다. “아빠” 하면서 달려와서 아빠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재롱부리고 자랑도 하고 먹고 싶은 것도 사달라고 조릅니다. 그런 자식들을 보는 아버지들은 아빠로서 무한한 행복감을 느낍니다. 아이들이 달려와서 한 녀석은 목을 잡고 늘어지고 한 녀석은 팔을 잡고 늘어질 때에 부모와 자식 간에 친밀감이 깊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품에 달려가서 안겨서 하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빠와 대화할 때에 일정한 형식이 없습니다. 문장구조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어만 나열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아빠 엄마는 다 알아듣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다 알아 듣습니다.

앤드류 머레이(Andrew Murray)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호칭(呼稱)이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 라고 하였습니다. 닫혀 있는 방에 들어가려면 열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면 열쇠가 필요한데 그 열쇠가 바로 다정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맡기는 심정으로 주님을 불러야 하겠습니까.

기도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실로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과거 하나님은 감히 그 이름도 부를 수 없었고 죄 많은 인간이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거룩하시고 엄위하시고 크고 두려운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با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با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롬8:14,15)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축량할 수 없는 은총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구별하여 영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존재하지만 하늘의 아버지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병들고 죽고 불완전하지만 하늘의 아버지는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지만 하늘의 아버지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그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하늘의 아버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늘의 아버지만이 참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의 참된 의지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스바냐 3:17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말을 막 배우기 시작하여 "아빠"라는 말을 할 때에 그 아버지는 그 아이를 안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덩실덩실 춤을 추듯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با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말없이 잠잠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큰소리로 부르지 않아도 은밀하게 기도해도 다 들으십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아시며 우리를 즐거이 부르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도 넓고 크고 한량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제목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이고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인간의 필요를 위한 간구입니다. 즉 전반부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요, 후반부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9,10)**

첫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hallowed be your name)(9b)

이것은 첫 번째 기도제목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온 세상 만물과 구별되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대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 채워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갔다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사6:3) 이것이 바로 우리인생들이 하나님 앞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고 생명과 호흡을 주시지 않으면 무슨 재주로 삽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학교공부를 하며 직장생활을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의 의무요, 도리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소년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을 때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군대 영장도 나오지 않았지만 영적인 분노를 품고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삼상17:26b)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삼상17:45)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수호하고자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시편들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고자 애를 썼는가 알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시103:1,2) 다윗이 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송축하는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31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양을 치든지 자녀를 양육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할 때 행복할 것 같지만 불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불멸(不滅)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각종 이단들과 안티 기독교 세력들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고 외쳤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둘째, 나라가 임하시오며(Your kingdom come)(10a)

믿는 자들의 궁극적인 희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통치하여 주시고 가정을 통치하여 주시고 캠퍼스를 통치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고 전 세계를 통치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타락 이후 사탄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통치하는 곳에는 온갖 부정과 부패와 불의와 폭력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는 사랑과 평화와 공의가 차고 넘칩니다.

본래부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온 세상에 주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지금 사탄이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왕이 아닌데 왕 노릇하고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인간세상을 지배하고 온갖 더러운 것들과 거짓된 것들과 음란한 것들로 유희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탄의 세력들이 날뛰고 있습니까? 사탄은 점점 그 통치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사탄이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물질과 쾌락의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요즘 음란사이트 운영자들을 잡고 보니 대부분이 10대들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성중독자들이 넘쳐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4월 9일자 국민일보에 보니까 한 초등학생 학부모의 하소연이 실렸습니다. 아들의 숙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검색을 하다 보니 결국은 음란물과 링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숙제를 안 할 수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하느냐고 토로를 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19보다 몇 천배 더 무서운 음란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음란물 왕국, 게임왕국, 한탕주의 도박왕국, 마약왕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왕 노릇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사탄은 오늘날 청소년들과 젊은 청년들의 마음을 장악해서 노예 삼고자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감각적인 문화들로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케이블 TV등 영상매체를 통해서 무섭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대구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집단 성폭행을 하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모두 인터넷과 케이블 TV에서 본대로 모방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대학가 주변을 봐도 원룸문화 동거문화 동성애문화 게임과 술 취함 방탕의 문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국제 수양회를 갖고 세계 각국에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온 세상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의 통치영역이 확장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3: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적 명령도 무엇입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16:15) 우리가 온 세상 만방에 복음을 전파하므로 사탄의 권세가 파헤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복음전파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역사 만민구원역사 성서한국 세계선교가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2041년까지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233개국 8,000캠퍼스를 개척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의 선교의 문이 열려 김일성대학이 개척되고 이슬람권의 사우디 대학이 개척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10b)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땅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루 속히 만유가 회복되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아버지께서 주신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26:39)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나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늘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기도문의 후반부(後半部)는 우리를 위한 것으로 제자공동체의 실제적인 문제를 위한 기도입니다.(11-13)

첫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Give us today our daily bread)(11) -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달(月)용할 양식이나 연(年)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일(日)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이는 욕심을 부인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간구하였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나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이다.”(잠30:8,9) 사람이 먹을 것이 많고 배가 부르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신명기는 이를 염려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반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내가 직장에 다니고 내가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키우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는다면 어찌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면 어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신8:17,18a)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빼고는 매일 매일 광야로 나가서 만나를 먹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둘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Forgive us our debts)(12) - 죄의 용서를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12) 죄는 분리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인간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인간과 인간 사이를 회복시킵니다. 죄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간의 복된 관계를 위해 죄의 용서는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시급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범한 죄는 아주 간절히 사함 받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범한 죄를 용서함에 있어서는 아주 인색합니다. 죄에 관한 우리의 태도는 이렇게 이중적(二重的)입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14,15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세상에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하는 문제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이혼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300여 쌍이 이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요인이 바로 배우자의 실수와 과실을 용서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도 사소한 것도 용서하지 못해 치고 박고 싸우고 서로 미워합니다. 그러나 용서로 치면 가장 하기 힘든 분이 바로 하나님일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슬프시게 하고 과실을 범하고 실수를 많이 합니까? 그것도 한 두 사람이 아니고 집단으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그 죄 값을 치르게 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아픔을 남긴 사람,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기도할 때에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셋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lead us not into temptation)(13) -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13)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벰전5:8) 우리는 연약하여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없고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교부(敎父, Father of the church)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둑이 몰래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려다가 방안에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감히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그 영혼을 훔치려 들어오려고 하다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감히 무서워서 들어오지 못 한다.”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가장 좋은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은밀하게 기도하면 내면이 강한 사람 영성이 충만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신앙고백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삶의 원리와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이 나라의 통치의 원리와 방향과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을 볼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은밀하게 기도하면 내면이 강한 사람 영성이 충만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복음전파자 존 낙스(John Knox)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 이 민족의 장래는 기도하는 우리의 무릎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기도하는 부모의 부르짖음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우리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날마다 주야로 무시로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신자의 경건생활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

. 구체나 기도나 금식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행할 때 우리는 외식과 위선의 옷을 벗어버리고 진실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자주 묵상하므로 하나님 중심의 분명한 인생철학을 확립하고 올바른 기도생활을 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 항상 바른 관계성을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길 기도합니다. 특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성서한국과 세계선교, 7부 교회를 위해 즐기차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